

#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외 6월 동향

2024.06 카드뉴스

# 리더 메시지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6월 Newsletter』는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생성형 AI, 금융혁신을  
촉발하다』을 소개하며,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유의사항 안내 등의 주요 보도자료를  
담았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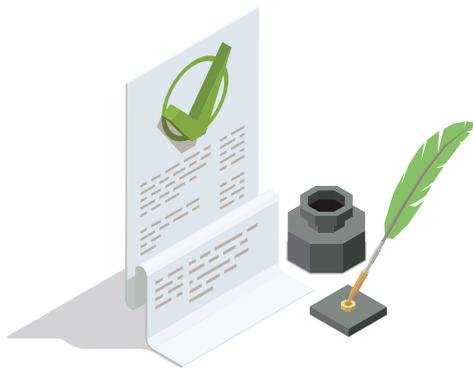
공시 환경의 진화에 따라

공시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지속될 전망

## 최근 공시의 특징

- 🏛️ 규제당국이 신규공시를 채택·제안하는 빈도 및 속도
- 📄 공시범위 확대와 신규 회계처리 방법
- 📁 자발적 공시의 확산 및 보고의 표준화 부재

## 공시위원회 재구성시 고려사항



헌장의 유지·개정



위원장·위원 재평가



위원회 운영 절차 강화

## 공시위원회 재구성 관련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공시위원회가 현 공시환경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아래 질문을 통해 검토 가능



- 공시위원회가 없다면 설치가 필요한가?
- 공시위원회 현장은 위원회가 담당하는 공시의 범위와 깊이를 반영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유관부서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는가?
- 공시위원회 안건은 관련 주제를 모두 반영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공시 검토의 품질 및 검토 여부를 효과적으로 문서화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하는가?

# 생성형 AI, 금융혁신을 촉발하다

생성형 AI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하므로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생성형 AI 전략을 설계해야...

## 생성형 AI의 중요성



생성형 AI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생성 능력이 있어 전문가의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매출성장의 기회 창출에 유용함

## 재무 담당임원(CFO)의 역할 및 생성형 AI 활용방안

- |     |   |
|-----|---|
| 관리자 | ✓ 질의응답, 지침요약, 규제·규정 준수 여부 판단  |
| 운영자 | ✓ 과거 회의내용 분석을 통한 핵심주제 식별, 다양한 시나리오 계획, 투자자 질의사항을 예측하여 분기별 실적 발표 준비          |
| 전략가 | ✓ 장기투자 또는 M&A와 관련된 이사회·이해관계자 대상 발표시 전략적 거시경제 발전 예측,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 제공 가능     |
| 촉매제 | ✓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모니터링·평가 지원, 기업가치 개발 거래 평가, 실사 실행, 자본 최적화 기회의 식별 등 최적의 전략 결정 가능 |

# 생성형 AI, 금융혁신을 촉발하다

## 생성형 AI 관련 주요 고려사항



### 인재

딜로이트 서베이에 참여한 CFO의 60%는 향후 2년간 생성형 AI 기술에 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함



### 사이버보안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생성형 AI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이버 리스크가 초래될 수 있음



### 신뢰성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프레임워크를 갖추면 리스크관리, 사용자 신뢰도 향상, AI 사용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기 위한 윤리적 보호장치 개발에 도움이 됨



## '23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2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도 97.3%(1,544사)로 전기(97.5%, 1,472사)와 유사한 수준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2.7%, 43사)중 중요한 취약점은 주로 '손상(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공정가치 평가(금융상품)' 등 평가 관련 통제 미비가 다수
- 경영진·감사기구는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 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계획 공시 필요

3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43사)의 대부분(29사)은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나, 일부(14사)는 '적정' 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도 감사과정에서 회계오류를 적절히 수정한 경우 재무제표 적정 의견이 가능
- 회계오류 재발 방지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 시정·보완 필요

#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점검 결과

은행지주(8개사)·은행(16개) 대상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 추진중

##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 업무총괄자 지위·임면·평가

대부분이 업무총괄자를 부서장급 이상으로 지정, 임면·성과평가지  
이사회 사전보고 및 참여 절차를 마련 예정

☑️ 이행시기 → 상반기 9사, 하반기 9사, 미정 2사, 기완료 4사



### 지원조직 인력

대체로 인력 규모는 크지 않음(업무총괄자 외 2명 수준으로 계획)

☑️ 이행시기 → 상반기 5사, 하반기 6사, 연내 1사, '25.1분기 1사, 기완료 11사

##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 종합적 승계계획

대부분 CEO 후보군 관리부터 선정까지 포괄하는 승계계획의  
구체화·문서화 진행

☑️ 이행시기 → 상반기 5사, 하반기 9사, 연중 2사, '25.1분기 2사, 기완료 6사

#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점검 결과

##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 CEO 자격요건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

☑️ **이행시기** → 상반기 4사, 하반기 12사, 연내 2사, '25.1분기 2사, 기완료 4사

##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 Board Skill Matrix

쏠 은행이 BSM(역량진단표) 도입 예정, 실질적 활용 위한 구체화 필요

☑️ **이행시기** → 상반기 5사, 하반기 13사, 연내 1사, '25.1분기 2사, 기완료 3사

##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 평가체계 점검

쏠 은행이 주기적인 평가절차·체계 적정성 점검 예정 (일부는 외부전문기관 활용 검토)

☑️ **이행시기** → 상반기 5사, 하반기 12사, 연내 1사, '25.1분기 2사, 미정 1사, 기완료 3사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횡령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유의사항

- ❗ **승인절차**
  - 계좌개설, 출금, 이체 및 전표입력시 **승인절차** 필요
  -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 가능하도록 통제절차 마련
- ❗ **업무분리**
  -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하는 업무분장** 필요
- ❗ **업무교체**
  - 자금·회계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주기적 순환 및 교체**
- ❗ **잔고점검**
  - 현금 및 통장잔고 **수시 점검**
  - 회사장부와 **외부증빙** 반드시 **대사**
- ❗ **보관·승인**
  - 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은 각각 다른 담당자가 **보관**토록 분리
  - 사용시 관리자의 **승인절차** 구비
- ❗ **내부감사**
  - 업무담당이사 아닌 **독립된 내부감사** 임명
  -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내부감사 부서·체계 구축

\*내부통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 향후 계획

FY2023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 예정

# 2024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 세미나 개요

대상 |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C레벨 등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14:00

주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다시보기



현장 스케치 영상

## 대주제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

### 세션 1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 (내부통제 중심으로)

외관상 상당한 동기를 가진 중요한 거래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 관련자료 공개, 다양한 논의 필요

 박재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세션 2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로 판단함을 강조

 장정애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4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 세션 3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 방향

책무구조도 이행점검 방안으로 부서장 등이 책무기술서·내부통제 업무매뉴얼상 조치활동 수행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운영 총괄부문에서 모니터링·보고 절차 관련 시스템 구축할 것을 강조

🔑 권대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파트너



## 세션 4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우먼 인 더 보드룸,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이사회 다양성 확대 통한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하고, 올해 감사위원회 5대 과제 소개 (사이버보안, 전사리스크관리, 재무·내부감사 인재, 법률·규정 준수, 재무혁신)

🔑 김한석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세션 5 패널 토론: 자금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 (금융사)이체지시와 자금보관·집행의 견제구조 확립, 고위험 직무담당자에 강화된 내부통제 적용 등
- 금융기관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펴보고 일반기업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필요
- 횡령예방책으로 내부회계 감사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은 설치시 혜택(ex. 세액공제) 제공 등 제시
- 외부데이터 조회 통해 신속한 횡령 적발 가능



🔑 유승원 좌장(동 센터 자문위원·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외 토론자 4인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 자문교수단



###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mailto:krccg@deloitte.com)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김한석 Partne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hansu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